



▲ “APEC 정상회의에 나타난 알버트 휴보”
 알버트 휴보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얼굴을 지닌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 로봇은 30여 개의 얼굴 근육을 재현했으며, 걷거나 춤을 추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정을 표현할 수 있다.

텔런트 홍석천 강연회 열려 “엘리트부터 앞장서 소수자에게 관심 가져주길”



▲ 텔런트 홍석천 씨의 강연

신이 커밍아웃을 했을 때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설명했다. 그는 “그 당시에는 같은 동성애자들조차 나를 비난했었다”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홍 씨는 “내가 커밍아웃을 결심한 것은 동성애자로서 당당하게 행복해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연 중간에 홍 씨는 “여러분들 중에 콘돔 사용 안하는 사람 있나요?”라고 물으며 안전한 성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학우들은 “커밍아웃 당시 가족과의 갈등은 어땠나”, “동성애자에게도 성 역할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

강연이 끝난 후 홍 씨는 학우들의 싸인 요청과 사진 요청에도 일일이 답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홍 씨는 강연에 오지 못한 학우들에게 “공부로는 배울 수 없는 세상의 일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을 남겼다.

전준 기자
 junejune1117@kaist.ac.kr

“소수자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지난 17일 창의학습관 터민홀에서 학부 총학생회의 주최로 텔런트 홍석천 씨의 강연이 열렸다. 홍석천 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날 강연회에는 약 50여명의 학우들이 참가해 홍 씨와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홍 씨는 시종일관 솔직한 대화로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홍 씨는 자

‘책에 날개를 달자 in KAIST’ 생활관마다 책꽂이 설치, 도서 기증 받아

학부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책에 날개를 달자 in KAIST’(이하 독서 캠페인)가 진행 중이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학업에 바쁜 학우들이 시간 날때마다 틈틈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학부 생활관에 각각 책꽂이를 설치하였으며, 학우들은 자신의 책을 책장에 꽂아 기증함으로써 다른 학우들과 책을 돌려가며 읽을 수 있다. 이미 각 책꽂이에는 총학이 선정한 도서들이 시범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학우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캠페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책 기증과 대여는 계속 가능하며, 책꽂이와 장부는 생활관자치회에서 맡아 관리하게 된다.

총학에서는 이번 캠페인과 동시에 학우들로부터 좋은 책을 추천받는 이벤트를 추진했다. 선정된 도서 10권은 지난 16일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각 기숙사에 설치된 책꽂이에 추가로 비치될 예정이다.

총학 부회장 심정은 학우는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멀리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날개를 달고 세상에 내보낸 한 권의 책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라며 학우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전준 기자
 junejune1117@kaist.ac.kr

“우리 과로 오세요” 16개 학과설명회 일제히 열려

지난 8일 전기및전자공학전공을 시작으로 학과설명회가 시작되었다. 학부과정 05학년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학과설명회는 어제까지 12개 학과의 설명회가 끝났고 앞으로 6개 학과의 설명회가 이어진다.

각 학과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과를 소개해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회자들은 다양한 동영상과 프레젠테이션으로 과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과의 활동이나 과내의 친목 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특히 기계공학전공에서는 미국에 교수로 있는 학과 선배와 직접 화상전화를 연결해 주목을 끌었다. 또한 수학과는 학과 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통해 학우들의 눈을 붙잡았다.

또한 저녁식사 시간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학과의 경우 학우들을 위해 피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학과설명회에 참여한 05학년

이인호 학우는 “준비된 정보뿐만 아니라 학과 선배에게 자세한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품이나 준비된 다과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학우들의 모습은 고쳐야 할 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김권호 기자
 bloodyred@kaist.ac.kr

인사발령 및 원규개정

〈인사 발령〉			
물리학과	교수	신성철	면. 부총장 겸 학장
기계공학전공	교수	김상수	보. 교학부총장 겸. 학장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장순홍	보. 대외부총장
인사팀	책임행정원	손정팔	면. 인사팀장 직무대행 보. 인사팀장

〈원규개정〉 (시행일 : 2005.11.10)

폐쇄	부총장
폐쇄	대외협력처
설치	교학부총장
설치	대외부총장
설치	서울부총장
설치	홍보국제처
소속변경	기획처
	변경 전 : 총장
	전경 후 : 대외부총장
소속변경	테크노경영대학원
	변경 전 : 부총장
	변경 후 : 서울부총장
소속변경	테크노경영연구소
	변경 전 : 부총장
	변경 후 : 서울부총장

손석희 강연회 “다양한 언론을 접하라”

지난 8일, 인문사회과학부 시청각실에서 “안에서 본 방송과 방송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MBC 손석희 아나운서국 국장의 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강연회에는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우들이 몰렸다.

손 국장은 시장 논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방송사의 현실을 지적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에 환원하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이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국장은 그 방법으로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우들과 이루어진 질문 시간에는 과학적인 사실과 어긋나는 과장된 언론 보도에 대해 “KAIST 학생들도 언론사에 입사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언론을 올바른 관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언론을 접하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준 기자
 junejune1117@kaist.ac.kr

터키어 강좌 개설 수강료 무료

우리 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Oktay Yarimaga학우가 우리 학교 학우들을 위해 터키어 강좌를 개설했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현재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 가량 진행하고 있다.

Oktay Yarimaga학우는 “내가 터키어 강좌를 개설하게 된 이유는 학우들에게 터키에 관해 좀 더 널리 알리고, 이로 인해 학우들이 터키를 가깝게 느끼고 터키어 뿐 아니라 문화적인 면을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Oktay Yarimaga학우는 “나의 목표는 내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3, 40 여명이상의 학우들이 강좌신청을 해 학교에서 정식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다”라며, 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참가를 원하는 학우들은 oyarimaga@hotmai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향수 기자
 water7227@kaist.ac.kr

과학문화사

**고객 만족을 위해
 항상 정진하겠습니다.**

기획·편집, 보고서, 포스터
 브로슈어, 각종 인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
 한국과학기술원(교육지원동 1층)
 전 화 : (042)869-5095
 (042)867-2323
 팩 스 : (042)867-2324
 E-mail : yks@kaist.ac.kr